Optic Weekly

www.opticweekly.com

깊이가 다른 안경 전문신문 주간 옵틱 위클리 2020년 01월 31일 발행(241호)

ABC 부수인증매체 한국ABC협회 www.kabc.or.kr

본지 창간 10주년 기념호

03 ISSUE
본지가 창간 10주년을 맞이해 안경업계의 지난 10년과 새롭게 맞이할 10년을 진단, 업계 미래를 제시하는 코너를 마련했다.

16 NEWS IN NEWS
우한 코로나 발병으로 중국의 각종 행사가 잇달아 취소되면서 오는 2월에 개최 예정인 상하이국제광학전이 무기 연기되었다.

안경사 구인구직

나도코리아
대구시 북구 노원로 48길 7
TEL 053.353.9992
FAX 053.351.4063

모바일 APP 출시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나도코리아' 어플을 다운로드 하셔서 무료로 안경사 구인구직을 이용하세요!

스마트폰 홈페이지 m.nado.kr
www.nadokorea.co.kr



DAGAS

다가스 카카오톡 채널 추가 이벤트

Ch+

'다가스 채널' 추가하고 선물 받자!

'다가스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시는 분들께 스타벅스 아메리카노(모바일 쿠폰)을 선물로 드립니다.

응모기간

2020.01.08~ 2020.03.27

경품내용

스타벅스 아메리카노(모바일 쿠폰)

경품발송일

2020.02.28(1차) / 2020.03.30(2차)



이벤트 참여 방법

STEP 1

카카오톡 상단 검색창에 "다가스"를 검색
또는 해당 QR코드 스캔



STEP 2

다가스 카카오톡 채널 추가



STEP 3

채널 추가 후 이벤트 포스트에 댓글로
[안경원명 / 이름 / 휴대전화번호] 를 입력



* 해당 이벤트의 자세한 내용은 다가스 카카오톡 채널의 해당 이벤트 포스트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지역대리점

서울 (주)일도옵티칼 02 448 7117 | 영신광학㈜ 02 853 8427 | (주)월드포커스 02 771 4282 | (주)일도광학 02 975 0633

경기 경기대명광학㈜ 031 391 5980 | 중부대명광학 031 283 1636 | 다가스광학(일산대명) 031 907 4265 | 대명렌즈광학(인천대명) 032 438 6800 | 경기일도광학 031 841 1416

경상 ㈜대명렌즈옵티칼(대구대명) 053 354 7779 | (주)동경옵티칼 051 894 3737 | 동협상사 051 412 2765 | (주)시원광학 051 758 2332 | 다가스동협(울산동협) 052 260 4593

충청 ㈜대명옵티칼(천안대명) 041 558 2202 | 대명렌즈(청주대명) 043 264 7887 | (주)한국렌즈(대전) 042 256 6256

전라 한국렌즈(전주한국) 063 236 0208 | 대명렌즈㈜(광주대명) 062 653 8998

강원 대명옵틱스(강원대리점) 033 735 1520

제주 동경제주지점 064 752 2648

대명광학(주) 충북 청주시 오창읍 과학산업2로 587-20, 043-240-4000

Optic Weekly
www.opticweekly.com
깊이가 다른 안경 전문신문 주간 옵틱 위클리 2020년 01월 31일 발행(241호)
ABC 부수인증매체 한국ABC협회

beb 안경원 도매 전문 사이트
www.beb.kr
(주)비아리코 서울 중구 퇴계로 4길 16 FS빌딩 대표 02.319.2300 매장 02.319.0718

저렴함과 하이퀄리티 모두 가졌다!
aoa
ALPA Arnold Palmer
www.aoa.co.kr
아오아상사 02.861.8686

안경계 10년 전과 후, 무엇이 달라졌나?

희망의 새 10년… 뼈 깎는 자구 노력에 달렸다

지난 10년간 기능성 안경렌즈와 컬러 콘택트렌즈 이외엔 대부분 시장 축소… 10년간 업계에 드러난 제문제 개선이 발전의 핵심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선현들의 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을 만큼 국내 안경산업의 지난 10년은 뽕나무 밭이 푸른 바다가 될 만큼 상전벽해(桑田碧海) 했다.

국내 안경시장이 10년 만에 격세지감을 느낄 만큼 변한 것은 대형마트에 입점한 안경원만 보아도 금세 알 수 있다. 10여년 전에는 마트 내에 안경원이 입점을 하려면 억대 이상의 웃돈을 챙겨주어도 들어갈까 말까였는데, 요즘 대형마트 안경원은 매출이 하루가 다르게 빠지면서 입점할 안경사가 없을 정도로 변했다. 심지어 대형마트 본사에서 관련단체에 입점할 안경원의 소개를 요청했다는 소문이 들릴 정도로 시장이 변했다. 그야말로 10년 사이에 안경산업이 상전벽해 한 것이다.

그러면 본지가 창간한 2010년과 10년이 지난 지금의 안경업계는 어떻게 변했을까.

아쉽게도 국내 안경업계는 지난 10년간 질적인 성장을 이루지 못하고 침체했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일각에서는 예전보다 양호해졌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시장 규모가 축소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실제로 국내 경기가 장기 불황에 빠진 이후 국내 안경생산 업체와 안경원 매출은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 안경원의 숫자가 10년 전보다 2,000여 곳이 늘어나는 양적인 변화가 있었지만, 이에 비례해 객단가와 고객의 숫자는 줄면서 안경업계의 살림살이가 팍팍해졌다.

또 안경원의 근무시간이 10년 전에 주 6일 근무에서 5일로 점차 당겨지는 휴식문화가 자리 잡고 있지만, 실상은 안경원의 고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에서 나온 변화이다. 대한안경사협회를 중심으로 '안경사에게 저녁이 있는 삶을 돌려주자'는 캠페인이 서서히 뿌리내리고 있지만, 실제는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 안경사가 대폭 늘고 정년이 빨라진 것은 업계 전체에 그늘이 더 깊어진 때문이다.



▲ 안경업계의 지난 10년을 살펴본다는 것은 미래 대비의 첫 번째 조건이 될 수 있다. 사진은 일선의 한 안경원의 내부 모습(이 자료사진은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련이 없습니다).

10년 전보다 부정적 변화가 업계에 만연

국내 안경업계는 10년 전에 비해 많은 것이 변했다. 다만 ▶업계 전체적으로 일할 것이 줄었다 ▶생산 환경이 열악해졌다 ▶안경 객단가가 떨어졌다 ▶공장이 줄었다 ▶수입품 판매가 줄었다 ▶선글라스 고객이 줄었다 ▶공테 고객이 늘었다 등등 부정적인 단어가 수없이 늘었다. 특히 일선 안경원이 뼈아픈 것은 10년 전보다 고객이 눈에 띄게 줄고, 안경테와 안경렌즈, 콘택트렌즈 가격이 하락했다는 점이다. 통계청 조사 결과 지난 2010년부터 18년까지 한국의 평균 시장물가 상승률이 3.47%를 기록 중인데, 안경원의 물가는 나날이 떨어져 안경사들의 비명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0년간 다른 제품은 최소 30% 이상 가격이 올랐는데 유독 안경가격만 하락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수원시의 한 안경원 원장은 "10년 전 일반적인 뿔테 한 장에 적어도 2~3만원은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보다 절반이 떨어졌다"며 "안경렌즈 역시 2010년과 비교하면 그 하락폭은 기가 막힐 정도로 크다"고 혀를 찼다. 계속해서 그는 "이 모든 것이 안경원의 과다 개원으로 인한 가격경쟁이 낳은 안경업계의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니까 어느 혹자가 말한 '안경시장은 안경사가 다 망쳐놓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기능렌즈 확대와 콘택트 정상판매해야

며칠 전 어느 매체는 국내 넥타이 봉제공장이 30년 사이에 300곳이 17곳으로 줄었다고 보도했다. 또 이마저도 1년 중 4개월은 일감이 없어서 놀고 있다고 적었다. 이들 봉제업체 관계자는 "정부나 대기업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넥타이 데이를 만들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국내의 안경업계 현실도 넥타이 봉제공장과 다르지 않다. 비록 10년 전보다 콘택트렌즈 출하량이 늘고, 기능성 안경렌즈 판매가 커졌다고 해도 역부족이다. 대다수 안경공장과 안경원은 혹한의 계절을 보내고 있음이 이를 증명한다.



결국 앞으로 맞이할 새 10년은 누진렌즈 판매 확대, 안경렌즈 가격 인상, 선글라스 고객 되찾기, 콘택트렌즈 가격 정상화, 안경사 전문성의 강화 등등 지금까지 안경업계에 노출된 여러 문제를 정반대로 역전시켜야 긍정적으로 변한다. 특히 국내의 누진렌즈 시장은 안경사 모두 끈질기게 키워가야 할 엄청난 시장이다. 또 UV 차단렌즈, 근적외선 차단렌즈, 청광 차단렌즈, 드라이브 렌즈, 근시진행 완화렌즈 등 다양한 기능성렌즈를 보다 더 확대시켜야 한다. OECD 회원국 대부분이 30% 이상을 착용하고 있는 누진렌즈 시장을 지금의 7%에서 30%로 끌어올리면 안경원이 행복해진다.

또한 콘택트렌즈는 안경원에 상징성이 강한 품목이다. 지금처럼 콘택트렌즈가 가격경쟁의 대표상품이 되어서는 안 된다. 콘택트렌즈가 없는 안경원은 상상할 수도 없거니와 특히 콘택트렌즈를 일반인이 판매하는 지옥 같은 상황을 안경사 스스로 만들면 결코 안 된다. 시장이 혼란하면 정부에게 온라인 판매의 빌미를 줌으로써 안경원은 안경렌즈 하나만 판매하는 최악의 벼랑에 몰릴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난시렌즈 등 기능성 렌즈의 판매를 확대해야 되지만 앞으로 맞이할 10년은 무엇보다 가격 정상화가 급선무다. 콘택트렌즈의 No마진 판매가 일체 없어야 한다.

결국 앞으로 맞이할 10년은 안경테와 선글라스의 선전을 꾀하면서 누진 등 기능성 안경렌즈의 판매 확대, 또 콘택트렌즈의 정상판매해 잃어버린 10년을 되찾아야 한다. 사실 업계의 모든 문제는 안경인이 만들었고, 그 개선 방법도 안경인이 쥐고 있다.

/특별취재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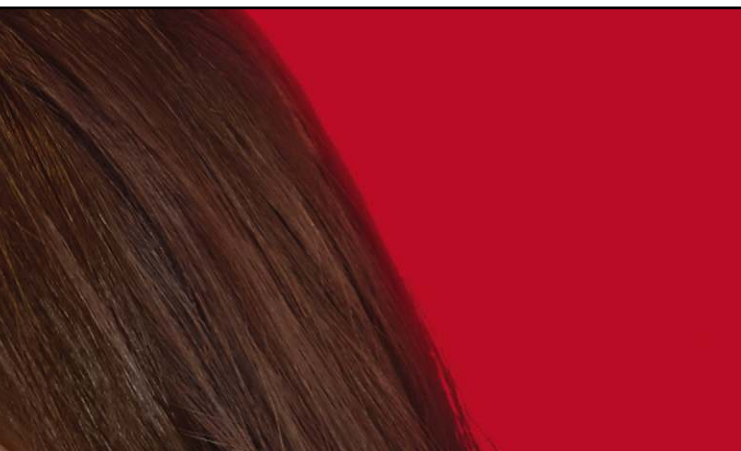
복특복특

- "신년이 되어도 안경원은 지난달이랑 큰 변화가 없네요. 정말 안경사에겐 연말연시 특수가 없어졌나 봅니다."
  (서울 강서구의 한 안경원 원장)
- "16개 시도지부 총회에선 한 마디 반론도 없이 모두 원안대로 의결됐다면서요? 그러면서 모슨 총회를 치르는지…."
  (경기도 용인시의 한 안경사)

LENSME

원데이 고민?
악마로 끝내!

1+1
악마 원데이 컬렉션



홀로리스 원데이 | 리얼핏 3칼라 원데이

우리 동네 렌즈미 만들어주세요!

서울 | 선릉·논현·위례신도시·까치산·창동·개봉·고덕·마포·마곡·종로·강남지하상가·왕십리·상봉·수서·신도림·방학·고속터미널·광화문·상암·대치·쌍문·한티·이태원·수유·약수·여의도·합정·길음·휘경·공릉·사당·강서구청·사가정 **경기도 |** 부천송내·안성·향남·동두천·동백·용인보정·평촌·동탄·별내·고덕신도시·광교·하남·마석·파주금촌·오창·분당정자 **대전 |** 시청·노은·관설 **대구 |** 시지·범물·두류 **충청도 |** 논산·청주지엘시티·조치원·공주대 **인천 |** 신현동·동인천·간석·청라 **부산 |** 화명·기장·사상·정간·양정 **강원도 |** 동해·속초·원주무실동 **전라도 |** 김제·광양·화순·전주신시가지 **광주 |** 조선대·첨단지구·광주운암·상무지구 **경상도 |** 경상대·김천·영주·양산·울산공업탑

가맹상담 번호 **010-9487-9045**



창간 10주년을 맞이하며…

2010년 1월 31일 주간 옵틱위클리를 창간하고 맞이한 10주년. 1993년 월간 아이센스를 발행하고 또 한 번의 매듭을 엮은 본지는 기쁨보다 걱정이 앞섭니다. 지나온 10년의 안경업계가 녹녹치 않았을 뿐더러 다가올 새 10년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본지는 지난 3,650일간 업계에서 일어난 희노애락을 전하는데 미진했습니다. 국내외 안경 정보와 미래 발향을 제시하는데도 부족함이 많았음을 자인합니다. 또 업계의 나침반과 풍향계로써 그 역활과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희망으로 맞이해야할 새 10년

앞으로 본지 편집진은 좋은 신문의 발간을 위해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이익에 눈이 어두우면 지혜가 희미해진다는 이령지혼(利令智昏)을 명심하면서, 또 어느 순간에도 정론직필의 부여된 역할을 잊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권 보호와 안경의 미래 창달을 위하는 일에 앞장서 뛰겠습니다.

창간 10주년이라는 단단한 매듭을 엮을 수 있도록 성원의 참여와 관심을 보내주신 업계의 모든 분들과 독자 제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편집진 일동



대한안경사협회 협회장 김종석

'업계 정론지로서의 역할에 감사합니다'

안경계에 희망과 긍정의 메시지 전달과 다양한 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해온 「옵틱위클리」의 창간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0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동안 「옵틱위클리」는 업계 정론지로서의 소임을 다하며 업계 발전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가 우리의 업권 수호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경주한 한 해였다면, 올해 대한안경사협회는 현장 중심의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나가고자 합니다. 안경업계는 여러 분야가 어우러져서 형성되어 있고, 각자의 역할은 다르지만 근본적으로는 안경계가 발전해야 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창간 10주년을 맞는 「옵틱위클리」가 협회와 함께 협회가 전하고자 하는 계도 • 계몽활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안경시회 회장 장일광

더욱 발전하는 신문사가 되기 기원

지난 10년간 한국 안경업계의 정론지로서 그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온 「옵틱위클리」의 창간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창간 이후 안경산업 발전에 앞장서며 한결같이 정확한 분석과 전망을 제공해주신 「옵틱위클리」임직원 여러분들께 아낌없는 박수와 감사를 전합니다.

그간 「옵틱위클리」는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차별화된 주간신문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향후 전문지의 역할이 더욱 증대될 것이 확실시 되는 만큼 「옵틱위클리」의 역할은 더욱 커질 것이고, 따라서 「옵틱위클리」에 큰 기대를 갖게 되는 건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지난 10년의 성장과 가치를 기반으로 향후 더욱 발전하는 신문사가 되길 기원합니다.



부산시안경사회 회장 진영일

안경업계의 바른 길잡이 되기를

매주 새로운 안경계 소식을 전해주는 「옵틱위클리」가 창간 10주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안경계의 생생한 정보 전달과 바른 길잡이 역할을 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옵틱위클리」의 임직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흐름에 잘 대처하고, 건전한 안경계와 우리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일조하는 언론으로 더욱 자리매김하시길 기원합니다. 무엇보다 안경사들의 동료의식을 강조하는 다양한 계몽기사 등을 통해 우리 안경업계에 올바른 풍토가 형성될 수 있도록 「옵틱위클리」가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옵틱위클리」가 우리 안경사 모두가 상생하며 전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확신합니다.



경기도안경사회 회장 이명석

안경사의 한 사람으로서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 안경업계의 새로운 소식은 물론 갖가지 따뜻한 미담을 전달해온 「옵틱위클리」의 창간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짧지 않은 지난 10년 동안 「옵틱위클리」는 우리 업계에서 최고의 공신력을 확보한 전문 언론으로 성장했고, 누구나 인정하듯이 업계 발전에도 적지 않은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옵틱위클리」의 노고에 경기도안경사회를 대표하는 안경사로서 큰 박수를 보냅니다. 향후 경기도안경사회와 「옵틱위클리」가 함께 힘을 합쳐 걸어가는 굳센 동반자로서 상호 발전할 수 있길 기원합니다. 다시 한 번 「옵틱위클리」의 뜻 깊은 창간 10주년을 축하드리며 안경사들과 소통하는 언론으로서 더욱 신뢰를 받는 신문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인천시안경사회 회장 이주신

정보화시대, 언론의 위상을 정립해나길

정보가 곧 힘이자 능력이 되는 21세기에 안경사들에게 소통과 언론의 장이 되어주는 「옵틱위클리」의 창간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10년간 「옵틱위클리」는 올바른 안경문화를 정착시키고 안경산업의 발전을 선도하는 한편 업계의 현안을 해결하는데 앞장서 온 것에 대해 안경사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립니다. 21세기는 지식정보화사회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 요즈음은 「옵틱위클리」 같은 전문 언론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며 우리 안경업계의 여론을 이끄는 「옵틱위클리」의 역할이야말로 날이 갈수록 그 존재가치를 더해갑니다. 이에 안경업계를 대표하는 전문 언론으로서 앞으로도 「옵틱위클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한국안경광학과교수협의회 회장 문병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옵틱위클리」의 창간 10주년을 축하합니다. 우리 안경업계의 모든 구성원들이 인정하듯이 「옵틱위클리」는 지난 2010년 창간 이래 전문지식과 정보를 제공하여 독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며, 학계와 협회, 그리고 업계를 이어주는 소통의 장으로 크게 이바지해 왔습니다.

현재 우리 학계를 비롯한 안경계는 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난관을 잘 극복하여 더 큰 성장과 도약하기 위해서는 중립적이고 발전적인 여론을 모으고, 대변할 수 있는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옵틱위클리」가 그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지속적인 열정과 사명감으로 우리 안경계의 밝은 미래를 주도해 가는 전문지로 우뚝 서기를 기대합니다.



한국안광학회 회장 박미정

업계의 등불이 되어 주길

「옵틱위클리」의 창간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안경업계의 전문 언론사로서 그간의 공로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안광학회는 그간 「옵틱위클리」를 통해서 업계, 산업계 및 학계 분들과 소통을 해왔습니다. 설립된 지 25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한국안광학회는 한국연구재단 안경광학분야 최초 등재지, 13년 연속 과총의 학술지 지원 사업 선정, 안경광학 분야 최초로 과총 학술대회 지원 사업 선정, 임상응용 학문으로서의 안경광학 분야 대표 학술지 발행과 같은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회가 학문적인 분야에서 새로운 역사를 기록함으로 인해 안경계 전체의 위상이 높아진 것과 마찬가지로 「옵틱위클리」도 전문 언론사로서의 모두의 등불과 같은 존재가 되어 주길 바랍니다.



한국전문신문협회 회장 양영근

안경산업의 미래를 이끌길…

「옵틱위클리」창간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더불어 안경업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발행인을 비롯한 임직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문 언론은 종합일간신문이 충족해 주지 못하는 전문적인 정보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관련 업계와 독자에게 제공해 주기 때문에 정보사회의 동반자로서 반드시 필요한 언론매체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옵틱위클리」는 지난 10년의 세월동안 국내외 안경, 렌즈, 광학기술 및 안과관련 보건의료 뉴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논평, 해설을 통하여 안경 산업계의 건전한 여론형성과 안경관련 산업발전에 기여한 바가 지대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옵틱위클리」의 창간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크신 발전을 기원합니다.



한국광학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박영화

'안경인들이 기다리는 「옵틱위클리」

미중무역 분쟁 등 세계적인 경기침체 속에서도 현재 한국 안경산업은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과 신소재 개발 등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로 한 달에 두 번씩 안경인들이 「옵틱위클리」의 도착을 기다리게 만들었고, 그러한 노력들이 쌓여 이제 누구나 인정하는 안경업계의 정론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0여년 안경산업의 성장과 발전에는 이번에 창간 10주년을 맞는 「옵틱위클리」의 전문적인 분석과 균형 잡힌 보도가 적지 않은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한국광학공업협동조합의 이사장으로서 이에 감사를 드립니다. 창간 10주년을 맞이한 「옵틱위클리」 임직원들의 노력에 박수를 보내며 향후에도 안경업계의 흔들리지 않는 정론지로서 그 역할을 꿋꿋이 수행하시길 기원합니다.



한국안경렌즈도매협회 회장 김영환

정론직필의 자세에 박수를

창간 이후 지금껏 안경업계의 정론지로서 그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온 노력에 대해 안경인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경의를 표하며, 「옵틱위클리」의 창간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동양적으로 10주기는 여러모로 남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데, 지난 일을 되돌아보며 개선점을 찾고 앞날의 원대한 계획을 세우는,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옵틱위클리」는 그동안 업계에서 꺼려하는 문제점도 과감히 드러내고, 올바른 소리를 전파하는데 주저함이 없던 정론직필(正論直筆)의 자세를 잊지 않고 10년을 보냈습니다. 앞으로도 그 같은 변함없는 자세와 정론지로서의 위치를 지켜주길 바랍니다. 「옵틱위클리」의 10주년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전문지로서 더욱 왕성한 활동을 기대합니다.



대한콘택트렌즈제조협회 회장 안성호

창간 1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2020년 경자년(庚子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혜로운 흰쥐의 기운을 받아 올 한 해에도 전국 안경사 여러분의 가정에 희망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먼저 지난 한 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안경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해주신 안경인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 드립니다. 또한 「옵틱위클리」의 창간 10주년을 축하드리며 더욱 큰 발전을 기원합니다. 대한콘택트렌즈제조협회는 콘택트렌즈 제조업체들의 어려움을 통감하며, 국내 콘택트렌즈 제조사의 영향력을 한목소리로 관철시킬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에 더해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진취적으로 대응하여 양적, 질적인 성장을 이룩하여 국산 콘택트렌즈의 글로벌화에 힘을 더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대한시과학회 회장 이군자

'향후 역할을 더욱 기대합니다'

「옵틱위클리」의 창간 10 주년을 축하드리며, 창간호부터 10년 동안 안경업계에 유익한 정보를 전해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신문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과 미래를 예측하는 모든 정보를 전달하며, 독자는 신문이 전달하는 정보를 통해서 미래를 대처해 나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독자를 위하여 정확하고 객관적인 기사뿐만 아니라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이슈를 발굴해 나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옵틱위클리」는 국내외 뉴스뿐만 아니라 업계의 이슈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안경계에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시과학회 회원을 대표하여 「옵틱위클리」의 10주년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옵틱위클리」독자 여러분도 올 한 해 모두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 원장대행 본부장 도기태

옵틱위클리는 미래 이끌어가는 주체

창간 이래 지난 10년간 꾸준히 안경 전문 신문으로서 그 역할을 담당해 온 「옵틱위클리」의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국내외 안경산업 현황과 신지식 전달, 업체의 동향과 현안 파악 등 수많은 안경계 이슈를 정론 직필해 온 임직원들에게도 심심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우리 안경산업이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미래 비전을 제시해 나가는데 있어 친밀한 조력자가 되어 주시길 거듭 당부 드립니다. 「옵틱위클리」는 지금껏 전국의 안경원과 안경사들을 비롯해 안경제조 및 유통사, 안경광학과 등 학계 등과 함께 안경전문매체로서 그 소임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옵틱위클리」가 안경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주체가 되어주길 기원합니다.

'가라앉는 안경업계' 쇄신은 선택 아닌 필수

아이웨어는 '흐림' • 안경렌즈는 '맑음' • 콘택트렌즈 '건조' • 프렌차이즈 '쾌청' … 각 분야마다 쇄신작업 시급

아이웨어 제조 환경 침체 속 디자인 인프라 구축 시급



현재 내수 안경을 생산하는 제조업체는 위기 수준이다. 안경 생산을 위한 인프라가 급격히 무너지며 부자재의 원활한 공급도 원활하지 않다. 심지어 신제품을 생산할 때도 샘플만 만든 후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다. 그야말로 도금이나 코팅을 제외하고 중국에서 부속을 구해 안경을 조립해 출시하는 것이 국내 안경생산의 현주소다.

여기에 더해 디자인 개발에 종사하는 전문 인력도 거의 전무하다. 공장 대부분이 전문 인력을 가동시킬 여력이 부족한 때문이다. 대구 안경 제조업체의 92%가 종업원 3인 이하의 영세업체(통계청, 2017년)인 점을 감안하면 우리 안경산업의 디자인 개발 여력은 극히 미약한 것을 알 수 있다.

대구3공단의 한 안경 제조업체 대표는 "솔직히 대구에서 생산되는 안경테의 80% 이상은 이전 히트 제품의 디자인을 약간 변형한 모델과 해외 유명 컬렉션의 카피제품"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제조업체들 사이에서 조금 팔린 제품은 디자인 원형 틀이 돌고 도는 것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고 귀띔했다.

국내에서 유일한 안경디자인학과가 대구보건대학교에 개설됐으나 신입생 미달로 결국 2014년 폐과했고, 지금은 손재주 있는 업계인들과 다른 분야의 디자인 전공자들이 안경을 디자인하고 있는데, 이들을 거쳐 생산되는 안경도 매우 제한적이다. 현재 이태리와 함께 세계 아이웨어 디자인의 양대 축으로 성장한 일본은 나고야의 기쿠치전문학교를 비롯해 총 5개의 안경전문학교를 통해 체계적인 안경 디자인 교육이 진행되고, 이를 통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안경 디자인을 내놓고 있다.

현재 국내 경기가 장기 불황에 접어들면서 안경원의 매출이 지난해 9월부터 급락, 안경 제조업체나 유통사들은 유례없는 불경기를 겪고 있다. 그야말로 백약이 무효일 정도로 매출의 바닥세에 빠져 있는 것이다. 안경원에서 어느 정도 판매가 이루어져야 생산이나 유통이 활동 여력이 생기는데 경기가 바닥이다 보니 운신의 폭이 거의 없는 것이다. 지금 국내 안경 생산 및 유통업계는 겨울 혹한의 한가운데 서 있다. 국내 안경 제조산업은 빨간불 그 자체다.

안경렌즈 안경원의 버팀목 안경렌즈 누진 시장력 무궁무진



국내 안경산업을 그나마 유지시켜주는 품목이 안경렌즈다. 업체 간의 신제품 개발 경쟁도 치열해 각종 기능성 안경렌즈가 앞 다투며 개발되고 있다. 그만큼 안경렌즈는 안경원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아이템이다.

현재 국내 안경렌즈 제조업체는 기능성 렌즈 개발에 올인하고 있다. 일례로 어느 업체에서 근적외선 렌즈를 출시하면 곧이어 2~3개월 후에는 같은 기능의 렌즈를 출시할 정도로 개발 의욕이 왕성하다. 이런 기술 경쟁의 덕분으로 5~6년 전 출현한 UV차단은 이제 안경렌즈의 필수코팅이 됐고, 청광과 근적외선 차단렌즈는 기본 구색 상품이 되었다. 제조사들의 이 같은 열정적인 개발 노력은 안경원에 새로운 수익원이 되고 있다. 더구나 국내 누진렌즈 시장은 잠재력이 엄청 크다. 국내의 누진렌즈 착용률이 7%에 불과한데 비해 유럽은 40%가 넘고, 가까운 일본은 30% 중간대를 웃돌고 있다. 한 외국계 안경렌즈 유통업체의 관계자는 "한국의 누진렌즈 착용률을 20% 정도만 끌어올리면 안경원은 매출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처럼 장미빛 국내 안경렌즈가 한 가지 숙제를 안고 있다. 바로 안경렌즈의 저가격 판매이다. 외국의 가격과 비교할 것도 없이 안경렌즈 소비자가격이 담배 한 보루 값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을 정도다. 본지에서 지난 2018년 8월 안경사 31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97.4%가 '안경렌즈의 소비자가격을 현재보다 인상해야 한다'고 응답할 만큼 안경사의 인상 욕구는 절대적이다. 누군가 어깨를 툭 치면 바로 인상바람이 불 태세다. 또 안경렌즈 유통업체들의 속을 들여다보면 문제가 또 있다. 중국과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에서 생산된 제품이 쏟아져 들어와 가격을 흐리면서 안경원의 마진율도 덩달아 하락시키고 있다. 남대문에서 안경렌즈를 유통업체 대표는 "자금 회전율이 빠른 단초점렌즈의 수요가 갈수록 감소해 걱정인데, 여기에 저가품의 공급이 늘고 가격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가격이 하락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경원을 웃기고 울리는 안경렌즈. 뭐니 뭐니 해도 안경렌즈는 가격 인상이 개선해야할 1순위다.





아이웨어… 경쟁력 잃은 산업은 디자인 전문 인력 활성화로 침체 벗어나야
안경렌즈… 안경가격 인상과 잠재력 큰 누진 및 기능렌즈 판매 확대해야
콘택트렌즈… 가격정상화, 난시 및 RGP 등 기능 렌즈 판매 적극 나서야
프랜차이즈… 성장속도 빠른 만큼 본부는 가맹점과 동반성장에 올인해야

콘택트렌즈 가격경쟁 가격할인으로 빛바랜 아이템



현재 콘택트렌즈는 전 세계적으로 AR(증강현실) 열풍 한가운데 빠져 있다. 콘택트렌즈에 당뇨병이나 혈압을 체크해주는 새로운 콘택트렌즈의 출현이 코앞까지 다가온 때문이다.

그러나 국내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콘택트렌즈 시장의 현실은 절대 밝지가 않다. 왜냐하면 2011년 11월에 개정 공포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 일명 콘택트법에 의거해 모든 콘택트렌즈를 오직 안경원에서만 판매할 수 있음에도 안경원이 일명 콘택트법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수년 전부터 제조 유통업계는 안경원에 불만이 많다. 솔직하게 말하면 콘택트렌즈 제조업체들은 온라인 판매를 희망하고 있다. 정부에서 2010년경 콘택트법의 제정을 위해 업계에 질의를 할 때 너나없이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았음에도 정작 업체에 돌아오는 혜택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안경원이 앞 다투어 콘택트렌즈를 가격경쟁의 아이템으로 이용하며 제조구입가를 턱없이 내림으로써 제조 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컬러렌즈의 강국으로 일컬어지는 한국산 렌즈가 젊은 세대들이 이용하는 포털사이트의 패션관련 커뮤니티에 '콘택트렌즈 제값 주고 사면 바보'라는 말을 쉽게 찾을 정도로 가격 구조가 엉망인 것이다.

국내의 대표적인 콘택트렌즈 생산업체의 관계자는 "국내 업체의 비중이 적어도 50% 이상을 상회해야 콘택트 시장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며 "동남아와 EU권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국산 서클, 컬러렌즈의 사례처럼 우리가 잘하는 아이템에 집중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그는 "특히 당뇨측정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 콘택트렌즈는 국산업체가 앞설 수 있는 분야로, 이에 대한 R&D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결국 일부 안경원에서 벌어지는 가격경쟁이 멈추는 것이 안경원에서 유일하게 판매하는 콘택트렌즈를 살리는 길이다.

더구나 근용안경의 온라인 판매를 위한 개정안이 폐기됨으로써 콘택트렌즈의 온라인화가 멀어진 이때 콘택트렌즈는 안경원이 꽉 잡고가야 할 안경사가 절대 놓칠 수 없는 아이템이다.



프랜차이즈 불경기일수록 힘 받으며 성장 지속



2018년부터 시작된 글로벌 경기침제로 안경업계의 주름살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과 달리 안경 프랜차이즈 업계는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2~3년 후에는 국내에 체인 안경원이 전체적으로 50%를 넘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안경원 프랜차이즈가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것은 불경기의 영향이 적지 않다. 1인 안경원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취약한 경쟁력이 체인에 가입할 경우 각종 제품부터 운영 시스템, 교육까지 공급받음으로써 단단해지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에서 국내 프랜차이즈 업체의 발전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계속될 전망이다.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안경원 원장은 "몇 년 전과 비교하면 독립 안경원은 줄어들고 프랜차이즈의 비중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대형 안경 프랜차이즈 업체의 관계자는 "자사의 가맹률을 감안할 때 현재 1만여 국내 안경원 중에서 프랜차이즈의 점유율은 적어도 5년 내에 65% 이상을 차지하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부 체인본부의 무리한 가맹비와 로열티로 가맹점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9월 가맹점을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는 체인본부에 한해서만 가맹사업을 허용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또한 공정위는 본부가 광고 • 판촉 행사 전에 일정 비율 이상 점주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내용도 마련할 예정이어서 가맹점주들의 경영 여건이 다소 개선될 전망이다.

부산의 한 프랜차이즈 업체 관계자는 "향후 안경체인사업은 치열한 경쟁시대로 접어들 것이고, 따라서 우리만의 독특한 사업기획과 아이템이 중요한 승부수가 될 전망"이라며 "어떤 사업이든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에 성공한 안경 프랜차이즈의 첫 번째 조건은 고객들로부터 안경사 전문성과 신뢰성을 인정받는 교육이 사업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프랜차이즈 업체는 어느 곳이든 하나의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바로 가맹점과 체인본부가 동반성장이다. 그러나 쉽고도 어려운 것이 동반성장이다. 업계의 식자들은 본부와 가맹점의 성공의 열쇠는 동반성장에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안경계 속 태운 지난 10년은 기쁨 반 아픔 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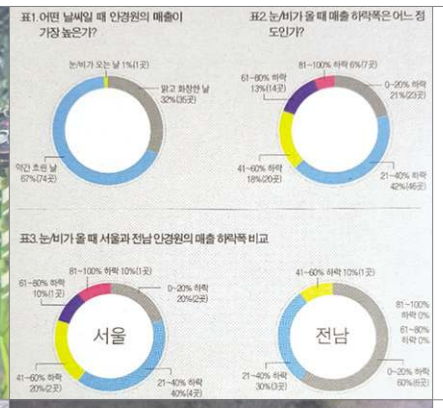
2010년부터 10년간 240호 발행하며 '기다려지는 신문' 자리매김… 독보적인 기사 게재로 열독률 1위 유지

제003호(2010.02.28)

엉뚱하게 먹거리로 둔갑한 수입 안경테

수입 쇠고기 12개 부위에 대해 시행되던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제도'가 중국산 안경테의 국산화를 막는다는 이유로 2009년 9월 수입 안경테가 전격 포함되었다. 본보는 제도 시행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안경업계 전체에 불어닥친 유통이력제를 행정 편의적으로 적용한 문제점을 상세하게 보도해 주목을 받았다.





제073호(2013.01.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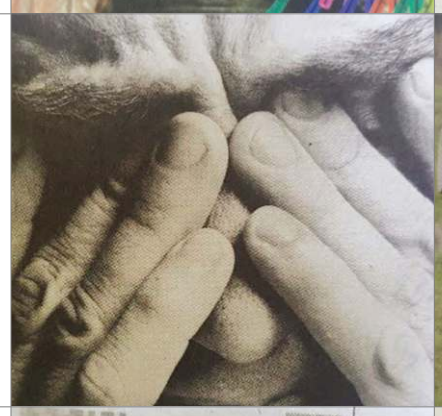
안경원 매출, 날씨가 '쥐락펴락'

본지가 전국 100곳의 안경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경원 매출과 날씨'의 상관관계 역학조사 결과, 매출이 가장 많은 날씨는 약간 흐린 날이고(67%), 그 다음은 맑고 화창한 날(32%), 비나 눈이 오는 날은 1%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이 조사에서 1년 중 매출이 가장 많이 오르는 분기는 63%가 3분기(7~9월)라고 응답했다.

제036호(2011.07.15)

시력교정술 3년 후 부작용 20%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1990년 국내에 도입된 라식과 라섹수술의 부작용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해 발표했다. 2002년부터 3년간 수도권 5개 대학병원과 1개 개인병원에서 근시수술을 받은 2,638명(5,109안)을 추적 조사한 이번 조사에서 수술 후 23%가 야간 불편감 등 부작용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사회문제화 되었다.





제082호(2013.06.15)

방독면 안경렌즈… 줄줄이 기준 미달

군사용 방독면에 사용되는 안경렌즈의 품질 기준이 크게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었다. 낮은 납품 단가를 맞추기 위해 UV, 멀티 등 저급 렌즈를 사용해 납품함으로써 장병들의 눈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고 있는 이러한 사실은 육군 군수사령부로부터 의뢰받은 한국렌즈도매협회의 테스트에서 드러났다.

제039호(2011.08.31)

안과마다 처방 제각각

한 근시환자가 서울 시내의 안과병원을 찾아 시력검사를 받은 결과, 시력이 −1.50인데도 9개 안과 중 2곳이 라식수술을 권유한 것은 물론 우안의 경우 크게는 120도에서 90도까지 30도라는 큰 차이로 제각각 검사 수치가 달랐다. 특히 이 탐문에서 9개 안과 중 4곳은 간호사가 시력검사를 수행해 충격을 주었다.





제094호(2013.12.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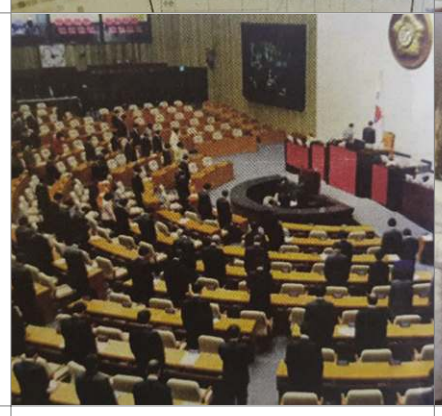
소비자 41%가 유료화 '긍정' 답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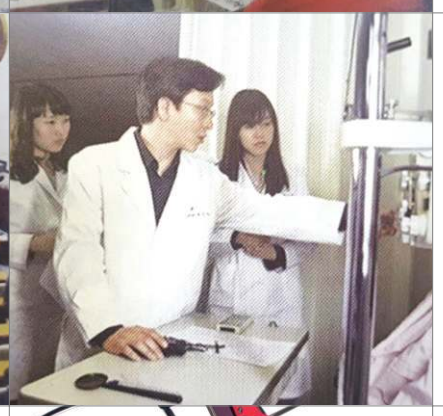
본지가 소비자를 대상으로 '안경의 피팅료 유료화'에 대한 설문을 실시한 결과 41%의 소비자는 찬성, 59%는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안경을 착용하는 소비자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 조사에서 안경을 수리할 때 비용을 지불한 적이 있느냐는 설문에는 14%가 '있다', 86%가 '없다'고 응답했다.

호외판(2011.10.29)

콘택트법 본회의 통과

국회는 2011년 10월 28일 콘택트렌즈 및 시력교정용 안경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는 의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 통과했다. 본지는 안경류의 온라인 판매 금지와 특히 콘택트렌즈를 안경원에서만 판매하는 일명 콘택트법의 통과를 기념해 호외판을 발행해 안경사들에게 역사적인 쾌거를 긴급 보도했다.





제101호(2014.03.31)

안광과 신입생 미달 사태

2014년도 안광과 신입생 모집이 몇몇 대학을 제외하고 정원 미달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 안광과가 개설된 1983년 이후 안경사 인기가 시들면서 학과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자료에 따르면 2~3년제 안광과의 경우 2011년도엔 경쟁률이 6.2대 1이었나, 2013년도는 4.9대 1로 떨어졌다.

제058호(2012.06.15)

눈 울리는 北안경, 안경원 고작 20곳

북한은 교정원(안경사)가 시력검사와 판매를 병행하며, 안경렌즈의 유통이 원활하지 못해 자기 도수의 근사치 안경렌즈를 사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본지는 중국과 북한을 오가며 안경을 유통하는 한 중간상인에게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결과 북한은 안경렌즈 주문이 2달 이상이 소요되며, 안경 착용률은 5~7%에 불과했다.





제115호(2014.10.31)

유행에 떠밀린 메탈테… 봄은 오는가?

최근 안경시장에서 메탈테의 소비자 선호도가 상승하면서 '메탈테의 도래'를 점치는 안경사들이 늘고 있다. 10년 넘게 국내 안경시장을 잠식해온 아세테이트, 셀룰로이드, 울템 등 일명 '뿔테'를 벗어나 서서히 메탈테가 유행하는데 대해 안경업계 종사자들은 메탈테의 유행을 반기면서 안경업계 전체를 위해 뿔테와 메탈테의 공존을 바랐다.

2010년부터 국내 안경업계의 눈과 귀가 되어온 옵틱위클리.
2010년 1월 31일자 발행을 시작으로 지난 10년간 결간 없이 240호를 발행한 옵틱위클리는 매호가 발행될 때마다 업계의 여론을 주도하는 정론지로 자리매김해 왔다.
무엇보다 안경원에서 기다려지는 신문으로 명성을 쌓아온 본지는 오프라인은 물론 온라인 홈페이지(www.opticweekly.com)도 평소에는 5천여 명이 방문하고, 신문 발간일인 15일과 말일경에는 1만 3천명 이상이 구독하는 명실상부 업계의 대표 매체로 인정받았다.
본지는 지난 10년간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톱기사 240개 중 20개를 엄선해 지난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 편집자 주

제124호(2015.03.15)

당선의 유혹… 금품 • 향응 넘친다

안경사 협회장 선거가 김영필 회장을 선출하면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그러나 협회장 선거가 갈수록 금품선거로 치닫고, 이런 사실은 선거가 끝남과 동시에 수면 아래로 가라앉으며 금권선거가 되풀이되고 있다. 하지만 금권선거는 선거 불복종 사태까지 벌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제181호(2017.07.31)

부회장단 8명, 협회장 불신임 결의

대안협 중앙회의 부회장들이 김영필 회장을 불신임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 불신임에는 회장의 임기는 내년 2월 정기대의원총회까지 보장하되 그 직무와 권한 일체를 부회장단에 이관할 것을 적고 있다. 협회 창립 이래 초유의 사태인 부회장 8명이 기명날인한 결의서는 한 부회장이 밀봉 • 보관하고 있는 상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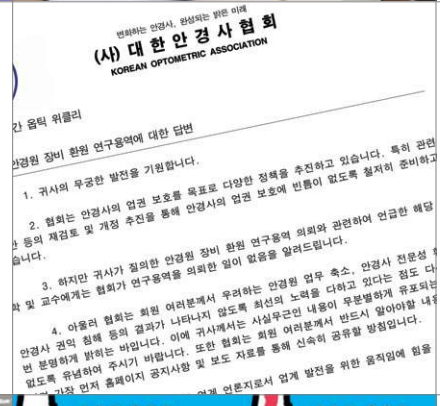
제142호(2015.12.15)

두 고객관리 프로그램 '샅바 싸움'

서울시안경사회가 IT개발 전문업체와 손잡고 선보인 안경원 고객관리 프로그램 RETINA가 협회 중앙회의 KISS 프로그램과 정면 충돌할 양상이다. 무엇보다 레티나는 키스와 달리 서울, 경기, 인천지역 안경원에 무상 공급하는데 반해 협회 중앙회가 5천만원을 투자해 제작한 키스는 매월 9천원 가량을 월 사용료로 받고 있다.


KISS의 구동화면

RETINA의 구동화면



제190호(2017.12.15)

안경원 장비 빼앗긴 협회… 3년째 뒷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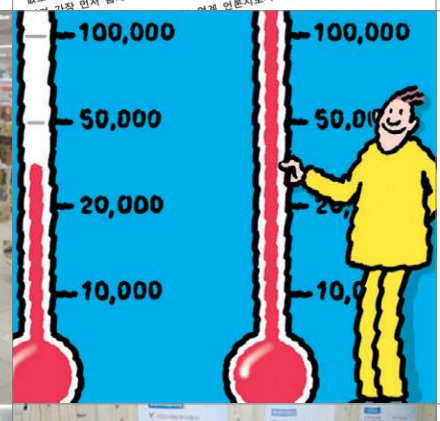
대안협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 협회가 시행규칙에서 삭제된 안경원 장비를 다시 입법화시키는데 3년째 허송세월을 보내자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대안협은 안경원의 필수장비가 삭제된 2015년 2월부터 3년이 지난 지금까지 복지부에 별다른 요구를 하지 않는 등 거의 움직임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제150호(2016.04.15)

뚝 끊긴 선글라스 고객… 어쩌다 이 지경까지

본지가 서울의 일반시민 204명을 대상으로 선글라스 구입처를 설문조사한 결과, 안경원에서 선글라스를 구입한 비율이 전체 응답자의 8.8%(18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15년 전에는 안경원에서 선글라스를 80~90% 이상 구입했으나 현재는 10명 중 1명도 선글라스를 구입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어 안타까움을 주었다.





제205호(2018.07.31)

위기의 안경원… 해답은 '안경렌즈' 제값받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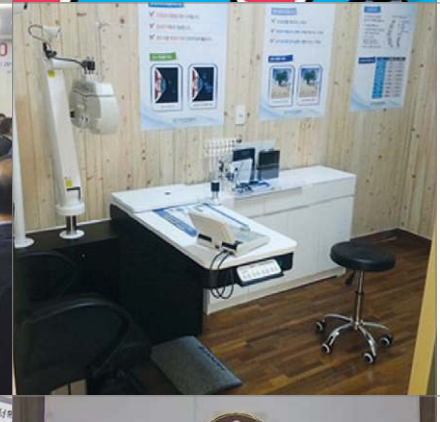
최근 국내 최대 생활용품社 D사에 이어 세계적인 의류업체 U社가 공테 판매에 뛰어들었다. 일선 안경사들은 대형 기업들이 안경계에 앞 다투어 뛰어들면서 제3 제4의 대형 유통업체들이 나타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안경계에서는 안경렌즈 제값받기와 안경 조제료 청구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제163호(2016.10.31)

독재 굳히는 정관 개정안… 회원들 반발

대안협 집행부가 정관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최근에는 충북 수안보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며 정관 개정에 나서기도 했다. 더구나 이날 임시총회에서는 '중앙회 당연직 대의원에서 시도지부장 삭제'를 주요 안건으로 상정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대다수 시도지부들이 사전에 반발해 상정되지 못한 채 불발되었다.





호외판(2018.12.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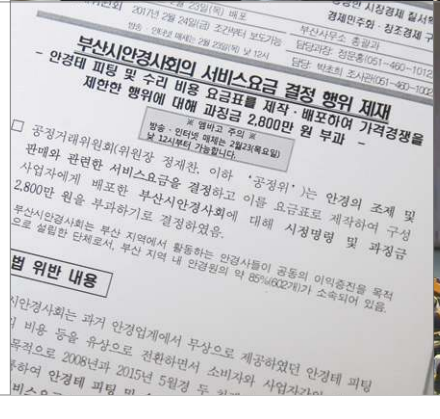
안경원 장비 복원!

의료기사법 시행규칙에서 안경원의 필수 장비가 삭제된 지 52개월 만에 복원되었다. 정부는 안경원의 장비를 명문화하는 개정 법률안을 12월 20일 공포했다. 이번에 공포된 법률은 특히 첨단의 6가지 장비와 함께 ▲안경사의 자동굴절검사기를 이용한 타각적굴절검사 허용 ▲안경사의 시력검사를 굴절검사로 자구 명문화하여 안경사의 업무영역이 더욱 확대되었다.

제171호(2017.02.28)

된서리 맞은 안경 조제료… 안경사 단합뿐

공정거래위원회가 안경의 조제 및 소모품의 요금표를 소속 안경원에 배포한 부산시안경사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8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보도자료에서 '부산시안경사회는 무상으로 제공하던 안경테 피팅과 수리비용 등을 유상으로 전환, 이를 요금표로 제작해 배포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의 부과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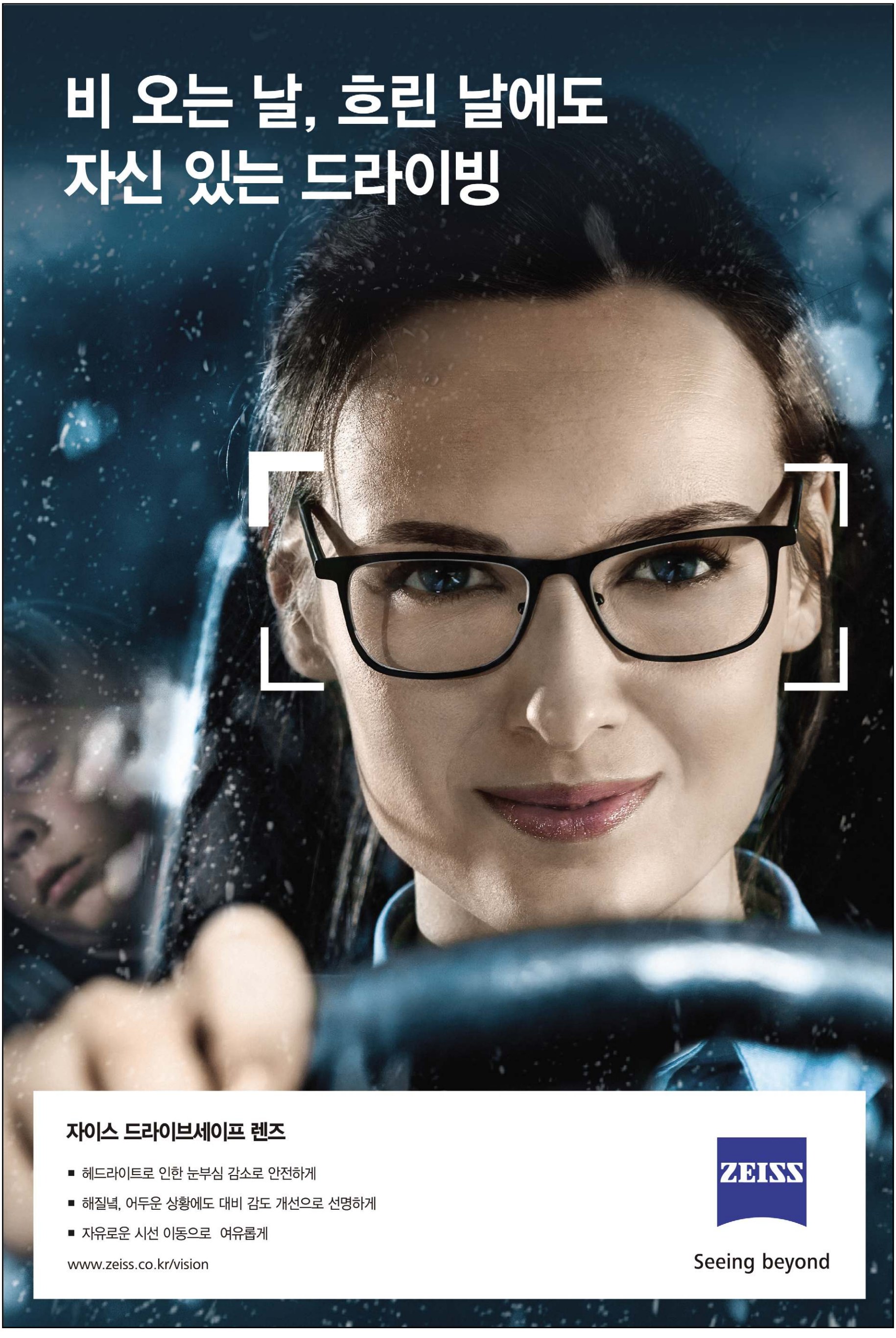

부산시안경사회의 서비스요금 결정 행위 제재
– 안경테 피팅 및 수리 비용 요금표를 제작·배포하여 가격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2,800만 원 부과 –



제238호(2019.12.15)

속 태운 개정안 자동폐기… 안경사 환호

지난 4년간 안경사를 옥죄었던 근용안경과 도수수경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는 의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자동폐기됐다. 지난 12월 10일 제20대 정기국회가 폐회되면서 폐기된 개정법률안은 당초 보건복지위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한 171개 법안 중 113번째로 올랐으나 정기국회 폐회를 끝으로 완전 폐기되었다.


비 오는 날, 흐린 날에도
자신 있는 드라이빙
자이스 드라이브세이프 렌즈
■ 헤드라이트로 인한 눈부심 감소로 안전하게
■ 해질녘, 어두운 상황에도 대비 감도 개선으로 선명하게
■ 자유로운 시선 이동으로 여유롭게
www.zeiss.co.kr/vision
ZEISS
Seeing beyond

KR_2020_24

온라인 교육으로 최신 콘택트렌즈 정보 및 검안 정보 업데이트

이제는 아큐브® 랜선교육!

매주 수요일 11AM, 4PM에 만나요 !

언제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15분 ~20분의 짧은 온라인 강의

"랜선교육 참여방법 딱 세가지!"

1. 플러스 친구 추가 아큐브® 랜선교육
2. 채팅방에 사전등록
3. 비지니스 skype 검색 후 어플 다운로드

2020년 랜선 교육 소식

정규 과정

매주 수요일 진행 (검안, 양안시,시기해부학,콘택트렌즈,노안,멀티포컬)

매달 스토리 있는 강의 진행 예정!! 한달이라도 놓치면 흐름이 끊겨요 !

특강
사전등록 필수

목요일 진행

(현대인이 많이 겪고 있는 안질환,제품교육,영어검안, 최신트랜드 기사 업로드 등)

2020년에도 안경원에서 필요한 내용으로 알차게 준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의사항은 하단 E-mail로 보내주세요 !

※ 안경원에서 필요한 내용 있으면 언제든지 E-mail로 전달 주세요!

아큐브 거래처 전용 강의
2월 27일
3월 12일, 26일
* 필수 : 사전등록

▼ 2020년 2월 랜선교육 일정 ▼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3	4	5 검안과정 - 예비검사	6	7	8
9	10	11	12 노안과정 - Easy 노안검사 방법	13 초등학생 눈 검사 2탄 시력교정 & 양안시 기능이상	14	15
16	17	18	19 양안시 검사 - 조절, 폭주점 편	20	21	22
23	24	25	26 시기해부학 - 알안두면 좋은 기본 상식(각막편)	27 FUN한 아큐브 스토리 1	28	29

▼ 2020년 3월 랜선교육 일정 ▼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3	4 검안과정 - 구면검사	5	6	7
8	9	10	11 노안과정 - 노안 검사 전 체크포인트	12 백내장 수술 후 검안 팁	13	14
15	16	17	18 양안시과정 - 커버테스트	19	20	21
22	23	24	25 시기해부학 - 알아두면 좋은 기본 상식(결막편)	26 FUN한 아큐브 스토리 2	27	28
29	30	31				

카카오플러스 "아큐브 랜선교육"

비즈니스용 스카이프(Skype for Business) 앱 설치
아큐브® 랜선교육 '비즈니스용 스카이프'앱에서 진행됩니다.

문의사항 :
acuvueprofed@its.jnj.com

ACUVUE®
새로운 세상에 눈뜨다

www.contact-bio.com
www.newbiocontact.com

NEW

FLOR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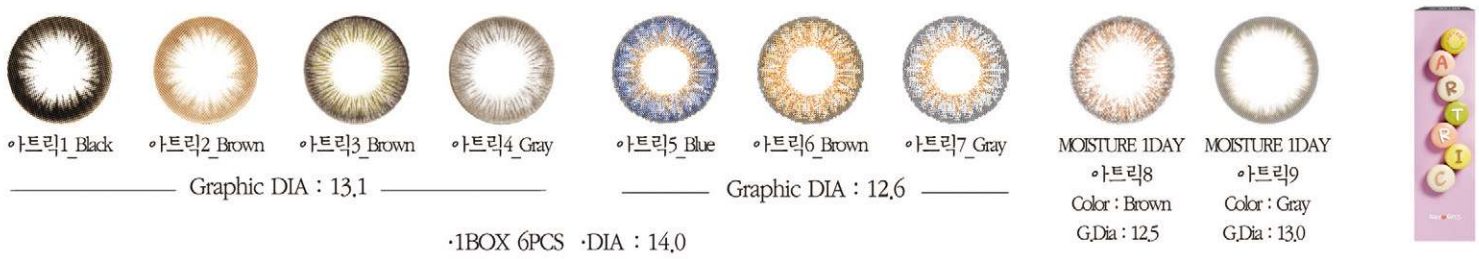
MOISTURE 1DAY/30PCS



DIA 14.0 G.DIA 12.8

1DAY series

ARTRIC 1DAY



아트릭1_Black 아트릭2_Brown 아트릭3_Brown 아트릭4_Gray — Graphic DIA : 1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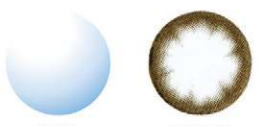
아트릭5_Blue 아트릭6_Brown 아트릭7_Gray — Graphic DIA : 12.6

·1BOX 6PCS ·DIA : 14.0

MOISTURE 1DAY
아트릭8
Color : Brown
G.Dia : 12.5

MOISTURE 1DAY
아트릭9
Color : Gray
G.Dia : 13.0

BIO MOISTURE 1DAY



TINT BROWN

·BIO MOISTURE 1DAY
·1BOX 42PCS
·DIA : 14.2
·Graphic DIA : 13.2



ARTRIC SILICONE 1DAY



아트릭10_BROWN 아트릭11_GOLD 아트릭12_GRAY 아트릭13_BLUE

·SILICONE 1DAY
·1BOX 6PCS
·DIA : 14.0
·Graphic DIA : 13.2



ARTRIC SILICONE



TINT BROWN GRAY

·SILICONE 2일렌즈
·1BOX 15PCS
·DIA : 14.0
·Graphic DIA : 12.8



NEW BIO 뉴바이오(주)

상/담/대/표/전/화 070. 4006. 1371

서울) 02. 523. 6995 | 광주) 062. 973. 6995
부산) 051. 803. 4148 | 대구) 053. 256. 4755 | 대전) 02. 523. 6995



디지털 기기로 인한 초기 중년안!
SYNC III for Digital Life

이런 증상으로 힘드시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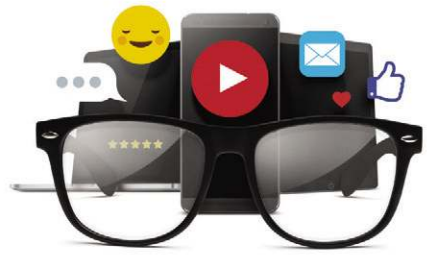


우리의 눈은 디지털 디바이스 사용에 최적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눈의 피로 걱정 없는 완벽한 디지털 라이프 실현을 위해

HOYA

#초기 중년안
#호야렌즈
#SYNC3로 해결



Copyrights solely for Hoya 2019

韓 시장개척단, 유럽 안경시장 '노크'

독일 OPTI 2020서 유럽 바이어에 수출 모색… 역대 최대 수출액 계약



대구광역시(시장 권영진)와 (재)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이 안경의 유럽시장 수출 판로 개척을 위해 진행하는 '지역안경산업 해외시장개척단 사업'이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독일뮌헨광학전(OPTI 2020)에서 실시되었다. 이번 시장개척단은 대구지역의 안경 제조업체 8개사가 참여하여 3,567,000달러의 상담을 진행한 결과 734,000달러의 수출 계약을 성사시켜 뮌헨광학전 파견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번 시장개척단의 참여업체인 A社는 200,000달러에 상당하는 현장계약을 성사시켰고, 유명 디자인 브랜드를 런칭하고 있는 중견 수출기업 B社는 브랜드 단체관 참가를 통해 실력을 인정받아 독일뿐만 아니라 프랑스, 이태리 유명 바이어들에게 브랜드를 진출하는 기회를 얻었다.

특히 이번에 독일을 방문한 시장개척단은 글로벌 안경시장에서 한국 안경의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데 기여하고, OEM뿐 아니라 브랜드 수출을 통한 고부가가치 패션 아이템으로 가능성을 확인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진흥원의 한 관계자는 "이번 시장개척단은 독일에서 400개 이상의 회원사를 보유하고 있는 독일안광학산업협회(Spectaris)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약속하는 등 지속적인 교류의 계기를 마련하는 큰 결실을 얻었다"며 "향후 대구시와 진흥원은 다양한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안경산업의 수출 강화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문의 053)350-7842

2월 개최 中 상하이전 무기한 연기

우한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개최 취소… 추후 개최도 불투명



▲ 지난해 2월 개최된 제19회 중국상하이국제광학전의 모습.

오는 2월 11일 개최를 앞두고 있던 제20회 중국상하이국제광학전(SIOF)이 무기한 연기되었다. 지난 28일 SIOF 사무국은 전 세계 안경관련 협회 등 각 단체 앞으로 이 같은 내용의 관련 공문을 발송했다.

SIOF의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26일 리커창 총리 주재로 열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중앙대응회의에서 추가적인 전염병 방지를 위해 각종 회의와 대형 행사를 줄일 것을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SIOF 조직위는 '상하이市 상임위원회의 통지를 받은 즉시 당초 2월 11일부터 13일로 예정됐던 상하이국제광학전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전하고, 향후 SIOF의 개최일정에 대해 '추후 공지하겠다'란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중국 우한市부터 발생한 폐렴 바이러스로 인해 올해 중국에서 개최되는 SIOF를 비롯해 5월 원저우국제광학전(WOF), 9월 베이징국제광학전(CIOF), 10월 광저우국제광학전(GOFAIR) 등의 개최 여부도 지금으로선 불투명한 상황이다.


第二十届中国(上海)国际眼镜业展览会组委会

通 告

1月26日，李克强总理主持召开中央应对新型冠状病毒感染肺炎疫情工作领导小组会议，进一步部署疫情防控工作，提出要"推迟、减少会议和大型活动"。上海市人民政府也启动了重大突发公共卫生事件一级响应机制。

1月28日上午，组委会接到上海市商委和上海市公安大型活动办电话通知，为响应中央号召，有效减少人员聚集，阻断疫情传播，原定于2月11日-13日的"第二十届中国(上海)国际眼镜业展览会"延期举行。

我们将密切关注疫情发展，与上海有关方面保持沟通协调，妥善安排延期相关事项。有关展会延期的具体时间，组委会一直与上海市有关部门和展馆方面保持沟通，待协商确定后另行通知。

中国(上海)国际眼镜业展览会的发展离不开各位展商与专业观众的支持，但在防控疫情的关键时刻，我们更关心大家的生命安全，给您带来的不便，敬请理解。

值此新春佳节之际，恭祝业界同仁健康平安！

特此通告，请相互转告。

第二十届中国(上海)国际眼镜业展览会组委会

中国眼镜协会 企业

2020年1月28日

▲ 제20회 중국상하이국제광학전 조직위원회 공고문.

디옵스에 우수기업관 참가업체 모집

대구 북구청, 관내에 소재한 기업에 부스 참가비용 지원… 선착순 모집



▲ 지난해 4월 치러진 대구국제안경전의 전시장 모습.

대구광역시 북구청에서 제19회 대구국제안경전(디옵스)의 북구 안경특구 우수기업관 참가업체를 모집하고 있다.

북구청은 오는 4월 8일부터 10일까지 대구시 엑스코에서 개최되는 디옵스 2020에서 1층 전시장에 안경특구 우수기업관을 운영할 예정인데, 참가자격은 ▶신청일 현재 대구광역시 북구에 본사 소재 기업 ▶안경 또는 관련 제조로 등록된 개인이나 법인 사업자 ▶신청일 현재 종업원 수 10인 이하 기업(4대보험 사업장 가입 명부 기준) ▶최근 3년(2017~2019년) 이내 디옵스 참가이력 1회 이하 기업 등이다. 지원내용은 북구청 안경특구 우수기업관 부스 참가비용, 참가업체별 업체홍보 및 제품상담 진행 등이다. 제출서류는 ▶참가신청서 1부 ▶정보제공동의서 및 서약서 각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1부 등이다.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의 관계자는 "신청기간은 지난 16일부터 선착순으로 모집 마감 시까지"라며 "대구광역시 북구청과 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등을 다운받아 진흥원 메일(diopsjp@koia.or.kr)로 접수하면 된다"고 전했다. 계속해서 그는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참가자격 적격자에 한해 선착순으로 우선 지정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053)350 - 7842

"미세먼지엔 선글라스도 필요해"

겨울에 때아닌 미세먼지 기승… 마스크 못지않게 선글라스 착용도 필수



▲ 미세먼지가 자욱한 2020년 1월 서울 중심부의 모습.

봄철도 아닌 겨울철에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올해 들어 겨울답지 않게 평균 기온이 예년보다 2℃ 이상 높으면서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어 미세먼지 농도가 크게 치솟는 등 초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된 날이 이달 들어 17일을 초과하고 있는 것이다.

미세먼지 수치가 높으면 신체 미약자 등은 마스크 착용이 중요한데, 사실 이에 못지않게 선글라스 등 안경과 모자의 착용도 빼놓을 수 없는 보호용품이다.

지난 2018년 3월 EBS의 '명의'에 출연한 강남연세세브란스병원 이비인후과의 김경수 교수는 "미세먼지가 많을 때는 마스크뿐만 아니라 모자와 선글라스 또는 안경을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며 "얼굴과 머리 부분이 미세먼지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면 탈모, 뇌졸중 등 두부와 뇌 질환이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선글라스와 모자를 쓰는 것만으로도 인체에 침투하는 미세먼지의 절대량을 20~30% 가량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 김경수 교수의 주장이다.

한편 일본은 이미 10여 년 전부터 '꽃가루 방지 안경'이 등장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선 지난해 10월 ㈜시선에서 먼지 차단용 안경을 개발해 시판하고 있다.